

# 침묵의 시간이 편안한 사이

김인희

연세대 교수·교육철학

30여년전, 우리 내외가 20대 젊은 나이로 한창 연애하느라 열이 올라 있었을 때에 내가 아내에게서 자주 듣던 단골 질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같이 팔장을 끼고 길을 걷다가도 서로간에 오가는 대화가 중단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 싶으면 “지금 무슨 생각해?”하는 질문이 튀어나오곤 했다.

연애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츰 그 질문의 빈도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결코 질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질문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내가 미리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구 물으려는 거지?” 하면서 선제공격을 하는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래, 지금 무슨 생각해?”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구 물으면 뭐라구 대답해야 하나를 생각해” 이런 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 요령이 생기기까지는 오랜 연애 기간이 필요했다.

젊었을 적에 나는 ‘무슨 생각’의 내용을 설명하느라 꽤나 인위적인, 때로는 위선적이기까지 한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그럴듯한 ‘생각’을 펼쳐 보여야만 될 것 같아서다. 그래서 자주 내가 읽은 책들에 대한 내 생각을 늘어놓곤 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연애하는 젊은이들에게 공통된 ‘생각’의 주제는 거의가 독서, 영화, 음악에 관련되는 것들이기 일쑤였다.

그나마도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내용이 요즘처럼 다양하고 풍요하질 못했기에 오히려 ‘생각’을 함께 나눌 소재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비교적 쉬웠던 셈이다. 어쨌거나 나는 연애하느라 독서를 조금은 더 했달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연인을 꼬실 만한 남다른 무엇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나서도 같은 질문은 종종 튀어나왔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 빈도가 현저하게 줄었다. 묻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속을 뻔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 굳이 입을 놀리느라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 20년이 넘으면서부터는 속으로 하는 생각은 고사하고 몸만 조금 움직여도 서로가 그 이유를 짐작할 정도가 된다. 걸음새가 조금만 달라져도 “당신 화장실 가려구 그러지?”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심신의 상태를 읽을 줄 알기는 피차가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둘이 같이 읽은 책이 있어도 그 내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생각이 들질 않는다. 아무개가 쓴 무슨 책을 사오라거나 읽어보라거나 하는 정도가 책과 관련된 일상적 대화가 되고 말았다. 가끔 지난번에 추천한 무슨 책을 읽어봤느냐, 그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오갈 때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의 내용 개진 부분이 길어지는 일은 드물다. 서로의 생각 내용이 같거나 비슷하기 일쑤이고, 설사 다른 것이 확인되더라도 열을 내어 논쟁할 필요도 재미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굳이 둘의 생각을 같은 쪽으로 묶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일 게다. 그런 상태로 판단하면 되는 게다.

둘이 함께 보내는 침묵의 시간이 길어져도 그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로 자라기까지는 부대낌의 세월이 필요한 듯싶다. 그 둘이 부부 사이이건 친구 사이이건, 독자와 저자 사이이건, 또는 읽는이와 읽히는 책 사이이건 마찬가지인 것이다.

- |           |    |  |
|-----------|----|--|
| 표지 인터뷰    | 2  | 고조선 이래 가야·발해까지 아우른 민족문학사<br>「조선문학사」 펴낸 이가원교수   |
| 초점        | 4  | 사원 재교육으로 경쟁력 높이는 출판사들<br>컴퓨터·외국어·마케팅 등 교육… 실무교재 개발 서둘러야  |
| 기획취재      | 6  | 활기 넘치는 한국학 자료의 전산화 작업<br>「조선왕조실록 CD롬」 등 시판도… 정보 통일화 시급   |
| 출판 화제     | 8  | 대중문화로 영역 넓히는 ‘페미니즘’  |
|           | 10 | 시대의 어둠 가른 인권 변호사들의 생애  |
| 화제의 책     | 11 | 지청천 장군의 일대기 통한 항전의 역사  |
| 신간읽기      | 12 | 공자르 트뤼의 「세계여성사」<br>1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뉴미디어와 초정보사회」  |
| 출판 시론     | 14 | “한국의 출판인은 너무 쉽게 책을 만든다”-노양환  |
| 업글        | 16 | ‘지랑스런 출판경영인상’ 받은 홍지웅사장<br>‘출판학회상’ 받은 김신혁사장   |
| 인터뷰       | 17 | APPA 총회 다녀온 김현식출판부회장   |
| 책과 사상     | 18 |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자유주의적 주장-이정우<br>기 소르망과 「자본주의 종말과 새세기」   |
| 작가가 읽는 영화 | 19 | 릴케가 읽은 로댕의 초기작   |
| 내가 읽은 원서  | 20 | ‘정상’과 ‘병리’에 대한 철학적 사변-이광래<br>조르주 캉귀렘의 「정상과 병리」   |
| 서평        | 22 | 신동욱 「1930년대 한국소설 연구」-최유찬<br>민병욱 「한국근대희곡연구」-서연호<br>23 이승훈 「모더니즘 시론」-이광호<br>24 권영필 외 「한국미학시론」-오중환<br>곽만순 외 「새로운 기술개발체제의 확립」-송위진<br>25 그룬트만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최병두<br>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장경렬<br>26 코헨 「미국의 중국근대사 연구」-강효백<br>김소영 외 「시네-페미니즘, 대중영화 꼼꼼히 읽기」-태혜숙 |
| 학대 서평     | 27 | 「현대철학과 해석 1」 「해석학은 무엇인가」-김의수   |
| 독자 서평     | 28 | 조정래 「아리랑」 외  |
| 이 책 그 사람  | 30 | 「김대중죽이기」 펴낸 강준만교수<br>「중국문화기행」 펴낸 허세욱교수<br>31 「요리하는 남자가 아름답다」 펴낸 노유경씨<br>「지구는 우리들의 집」 펴낸 이창형씨   |
| 세계의 출판    | 32 | 젊은 시절 사르트르의 내면세계<br>2차대전 발발 직후부터 쓴 미공개일기 출간·외  |
|           | 34 | 신간 안내 / 43 어린이 책 / 44 새로 나온 책  |